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배포 일시	2019. 11. 6.(수)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항만정책과	담당 자	·과장 김명진, 서기관 김원중 ·☎ 044)200-5910, 5911	
보 도 일 시		2019년 11월 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6.(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동북아 항만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한·중·일 한자리에

- 11. 6.~8. '제20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3일간 경남 창원에서 '제20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중·일 항만당국 및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2000년 이후 매년 3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표와 각국 국책연구기관의 항만 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친환경 항만 조성방안'을 주제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각국의 항만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일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항만 구축 전략, 항만의 고품질 통합발전, 항만 항로 및 정박지 유지·관리, 환경 친화적 항만관리 지침서 작성 등 4개 연구과제의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항만·선박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 친환경 항만인프라 확충 등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동북아 항만심포지엄(11. 8.)’에서는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항만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3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국제 해상물류 분야의 친환경 기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 블루카본(Blue Carbon)\* 적용, LNG 병커링, 저탄소 연료기술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해안가의 해양생태계, 해초류, 염생습지 등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

김성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한·중·일은 세계 경제 규모의 23%,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물류의 핵심이다.”라며, “3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항만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동북아 항만의 상생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회의 개요

- 회의명: 제20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 심포지엄  
(The 20th Northeast Asia Port Director-General Meeting and Port Symposium)
- 회의 목적
  - 항만 당국 대표 정례회의를 통한 지속적 항만 발전방향 모색
  - 정부 및 민간대표들의 교류, 화합, 네트워킹의 장 마련

□ 기간 및 장소 : 2019. 11. 6(수) ~ 8.(금)

□ 장소 : 경남 창원시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 호텔

□ 주제

- (국장회의) 친환경 항만 조성 방안
- (심포지엄) 국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항만의 대응방안

□ 주요 내용

- 1일차(11.6) :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과장급 회의, 환영만찬
- 2일차(11.7) :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항만국장회의 만찬
- 3일차(11.8) : 항만투어, 항만 심포지엄 등

□ 참석인원

- 과장급 회의 : 대표단(한국 11명, 중국 5명, 일본 10명) 등 약 26여명
- 국장 회의 : 대표단(한국 10명, 중국 6명, 일본 12명) 등 약 28여명  
\*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장 리 티엔비,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 기술참사관 호리타 오사무
- 심포지엄 : 국장회의 참석 각국대표단, 중국 항만협회, 일본항만협회, 한국 항만협회 및 항만업계관계자 등 약 200여명

※ 개최 현황

- '95년 한·일 항만국장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였으며, '99년 회의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로 확대기로 결정
- '00 ~ '18 : 3국이 순차적으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개최

<연도별 동북아항만국장회의 개최현황>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국가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개최지	동경	서울, 속초	북경, 상해	동경, 나가타	서울, 부산	북경, 연태	동경, 미야자키	광양	북경	동경	제주	항주	요하루	울산	남경	고베	인천	청도	시즈오카